

표심 쫓는 여·야 불교문화는 ‘뒷전’

주요 정당 20대 정책공약 분석... 축소 확연

20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발표한 정책 공약 중 전통문화와 진흥책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각 정당의 20대 총선 공약을 점검한 결과 19대 총선 공약에서 새롭게 도입된 공약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활용 강화방안이 유일했다. 이와 함께 19대 총선 당시 문화유산 보존·활용방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국민의당은 전통 문화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문화융성 분야의 공약 중 시도지정문화재 보존·활용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문화재 보수 정비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도입된 현행 문화재돌봄사업의 전면 확대와 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사업의 지자체 의무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불교계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산사문화축전 활성화 및 폐사지 소재 문화재 상시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지역공약으로 충남지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지구의 보존 및 활용, 경북지역의 불교문화포럼을 포함한 세계역사문화융성 플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들 공약은 19대 총선 당시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한반도 천년역사문화 거점 육성 등으로 제시한 내용을 승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관련 공약을 반영하지 않았다. 19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세부 목표로 6개 권역 지역문화재청 신설 및 문화유산지식개발원 설립 등을 비롯해 문화유산 관리 내실화, 전통문화 콘텐츠 통합관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각 정당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공약이 축소된데 대해 박주현 조계종 기획실 대외협력팀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에 국민적 관심이 몰리다 보니 표심과 관련된 분야에만 공약이 집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현상은 환경 파괴 및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법 제정 등의 규제완화 공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살리기 분야에서 관광을 통한 지방자리 창출을 선언하고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지

77%가 산림보호를 이유로 관광자원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15년 9월 문체부가 입안을 시도해 불교계가 강력히 반대한 법안으로 당시 조계종은 반대성명을 통해 국립공원과 국립공원 훼손 및 전통사찰 주변 난개발과 유류지화 등을 우려한 바 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 및 국립공원 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한 해결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오히려 지속가능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전통가치 및 환경보존과 더불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범은 스님은 “여당의 문화정책은 국가정책의 기반이 되는 심층적이고 폭넓은 공약이

새누리당 문화재보존안이 유일

더민주당·국민의당 아예 없어

19대 총선보다 대폭 축소 경향

“경제 등 표심 공약 집중” 분석

여당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추진

사찰 환경 파괴 예상 ‘대책 시급’

대야 함에도 상시관리 강화 수준에 불과하다. 야당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어린 공약의 제시가 없다. 사실상 각 정당이 국토파괴와 상업주의를 부추기는 정책을 내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토환경과 문화유산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과 정체성 그리고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심도 깊은 정책 제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대 총선과 관련해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불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뭇생명의 평화와 행복, 우리 불자들의 손으로 만들어갑시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캠페인은 전국주요 사찰·불교계 기관의 포스터 1000여 장 배포 및 불사넷 페이스북 상 홍보로 진행된다. (02)722-501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0인 대중공사 시즌2 ‘시작’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제로 한 올해 첫 100인 대중공사가 열렸다.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3월 31일 서울 불광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125명의 대중공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대중공사 입재에서 제도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2·27면> 사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한글 창제와 불교 역할’ 본격 연구

종단 최초 교육아사리 연구프로젝트 추진

아사리·외부전문가 공동 연구

오는 10월 경 논문 발표 예정

조계종이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의 불교 역할에 대해 종단 차원의 연구를 시작한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수경)는 3월 30일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를 주제로 교육아사리 중심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에는 해각존자 신미 대사 등이 직·간접적인 역할

을 했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불학연구소가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에 대한 불교 역할을 학술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종단 차원에서 교육아사리 스님들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프로젝트는 처음있는 일이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연구프로젝트는 크게 3개 세부 주제로 나뉘어 7명의 교수아사리 스님과 외부 전문가 1명이 참여한다.

첫 세부 주제는 ‘훈민정음의 확산과

정착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로 정각·벽공·영석 스님이 연구를 진행한다. 이들 스님들은 간경도감에서 발행한 불경언해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한글 경전이 번역되고 유통됐는지를 중점 연구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훈민정음의 교육과 활용’에는 오인·우석·자현·정천 스님이 참여한다. 훈민정음 창제와 여성 역할부터 황실불사와 훈민정음 등의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외부전문가로는 <훈민정음의 길> 저자 박해진 작가가 참여해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에 끼친 해각존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박해진 작가는 “훈민정음의 창제부터

보급까지 불교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었다”면서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정점에 있는 한글 창제에 대해 신미 대사뿐만 아니라 당시 불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고찰할 것”이라고 연구 계획을 밝혔다.

불학연구소장 수경 스님은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 역할에 대해서는 한번의 연구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번 연구는 장기적 연구에 대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논문 연구 발표는 한글날 이전인 10월 6일로 예정하고 있다”면서 “관련 연구 논문에 대한 학진 등재 학술지 게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태종, 최대 규모 예술공모대전 연다

불화·조각 등 7개 분야

오는 8월 29~31일 접수

2011년과 2013년부터 각각 사진공모전과 서예대전을 개최해온 천태종이 예술분야 저변확대를 위해 종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한다.

천태종(총무원장 훈광)은 오는 8월 29~31일 ‘제1회 천태예술공모대전’ 공모작품을 접수한다. 제1회 천태예술공

모대전은 기존의 사진·서예공모전을 통합하고, 예술분야를 추가해 종합 공모전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통불화 △현대불화 △조각 △공예 △서예 문인화 △사진 △민화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공모작을 접수한다.

전통불화와 현대불화는 200호 미만에 1인 2점 제한이다. 조각은 높이 250cm 미만, 공예는 가로세로 50cm까지다. 출품 제한은 조각 1인 2점, 공예 1인 3점이다. (이상 출품료 1점당 5만원) 서예 문인

화는 전지 이하이며 사진은 3024×2106 픽셀 이상이다. 1인 3점 제한에 출품료 1점당 3만원이다. 민화는 100호 미만에 1인 3점 제한, 출품료 1점당 2만원.

참가희망자는 출품원서와 출품자 경력서, 작품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서는 5월 1일부터 천태종 및 금강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접수장소는 서울 관문사(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6길 111호).

심사 및 결과발표는 9월 초 예정이며,

전시회는 11월 16~21일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시상식은 전시 기간에 진행된다. 전 부문에 걸친 심사 이후 대상(1명)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상장 및 상패가 수여된다. 최우수상(2명)은 상금 500만원, 부문별우수상은 각 100만원이 주어진다.

천태종 관계자는 “예술분야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코자 새롭게 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하게 됐다. 기존 별도로 시행했던 공모전에 비해 상금 규모가 늘어났다”며 “불교예술 전반의 신인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23-1559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석가를 품은 53표

본문 중에서

제 33표 스승을 찾아서

다문제일 아난존자는
석가세존을 25년간 시봉하고
팔만대장경을 모두 암송하여도
부처님 열반 후에야
홀로이 깨달았다.

이를 진귀가 품어보면.....

이런 사실은
석가세존의 허물인지?
아난존자의 허물인지?

<이 세상에 석가세존보다 훌륭하고
깨달은 선지식이 있다면 난 그 분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리라...>

<석가를 품은 53표> 저자
화엄경 강원/강주
眞歸 두손모음